

#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여명 모집

### 익산시, 공익·사회서비스·시장·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 13일까지 참여자 신청 접수

익산시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만 1,28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475억 원이 투입되며 모집 인원은 유형별로 △공익형 9,279명 △사회서비스형 1,533명 △시장형 264명 △취업알선형 210명이다.

참여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으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익산시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등 14개 수행기관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공익형의 경우 저소득 어르신 소득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

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부터는 지역연금수급자도 소득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노년세대의 숙련된 기술·전문성·경험 등을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자를 우대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취업보조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10~12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접수가 가능한 수행기관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로장애인과(063-859-5838),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정지

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순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먼저 노노케어, 아동 돌봄, 취업·취약계층 돌봄사업 등 지역사회의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분야는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정비 사업이나 업무 효율성이 낮은 사업단은 축소한다.

또한 시니어특화직업장에서 시니어 전문 교육·훈련을 진행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내년에는 네일아트, 조경원예전문가, 바리스타와 요리사, 정리수납 전문가, 동화구연가를 양성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민간일자리의 연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세아제강,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참여

### 성금 3000만원 기탁·연탄나눔 봉사료 이웃사랑 실천

(주)세아제강(군산공장장 홍정덕)은 3일 희망2025 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아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홍정덕 공장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직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가치를 생각하고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탁해 주신 성금은 혹한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직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신 세아제강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성금 기탁을 마친 세아제강은 그동안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구암동에 거주하는 10가구 주민들에게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및 연탄, 난방용품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고향사랑기부

### 수제맥주 '덤덤' 이벤트

군산시가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4일부터 24일까지 '군산에 기부하고 수제맥주 받는 덤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 기간동안 군산시민이 아닌 누구나 군산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군산에 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맥주(3캔)를 선물로 제공한다. 물론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지역세액공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기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산시 답례품은 쌀, 단팻빵, 박대, 잣대 등 19개 품목의 군산 특산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기부)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평생학습관

### 디지털 성과 공유회 개최

군산시평생학습관은 2024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디지털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성과 공유회는 올해는 '배움과 나눔의 학습 공동체'라는 표어 아래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물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는 52개 강좌 1,230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거리공연, 전시회, 체험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평생학습 강좌와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디지털 성과 공유회는 20개 강좌, 162명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에서 공연과 미술, 공예품 등을 감상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강좌 홍보와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되도록 구성했다.

학습 성과물은 군산시평생학습관 1층과 2층에 전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또는 QR코드로 접속하면 디지털 성과 공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국립군산대, 풍력발전 분야 업무협약 체결

### 부산정관에너지·티에스윈드와 기술 개발·전문 인력 양성·지역 발전 '맞춤'

국립군산대학교와 부산정관에너지(주), 티에스윈드는 3일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풍력발전 분야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정관에너지(주) 박재덕 대표, 민태홍 경영관리본부장, 임광천 소장과 티에스윈드 이우식, 조성희 공동대표와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최연성 부총장, 장민석 산학협력단장, 박태욱 융합과학대학장, 임채환 해상풍력연구부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운영 △풍력발전 BOP O&M(유지보수)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기술 자문 및 기술 지원 등 상호 보완 △지역발전 및 상생 협력 방안 도모 등이다.

부산정관에너지는 국내 1위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 SK이노베이션 E&S의 100% 자회사로써, 160km에 이르는 배



전망 관리 능력을 입증받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기술부설 사업자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인 800MW 태양광 발전소와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국내 최대 민간주도 해상풍력인 '90MW 전남해상풍력발전 1단지'를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티에스윈드는 현대중공업에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한 O&M 전문 업체로, 베스타스, 가메사, 유니스, 두산, 현대 풍력발전기의 경상(중)정비와 정밀진단을 수행

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평가원이 주관한 고정식 및 부유식 해상풍력 유지 보수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였고, 풍력발전기 상태진단과 수명연장 R&D 기술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미국 HENKEL 단지와 핀란드 KEMI 단지의 풍력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였으며, 전남 해상풍력 B.O.P O&M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국내 해상풍력단지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2024 보육 유공자 표창식 개최

익산시가 안심보육 환경 조성으로 지역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보육교직원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3일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보육 기관 관계

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육 유공자 표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돌봄 공백 없는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교육문화 조성에 힘쓰는 보육교직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리원광어린이집 백연옥 원장 등 30명이 익산시장 표창을 수상했고, 익산어린이집 장진아 보육교사 등 30명이 익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표창 대상자들은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